나주에 불교박물관 선다

'만하불교박물관' 추진위 구성 "지역불심 모으자"

97년 완공 목표…불화·고탱화등 전시 교육마당 활용

불교미술 전문박물관이 전남 나주지역의 각 단체 지도자들과 단청장(중요무형문화재 48호) 박정자씨에 의해 설립된다.

불화를 중심으로 불교 조각·탑 등을 전시할 만하불교박물관(卍霞佛敎博物館)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재학)가 최근 나주시 유력인사들을 구성원으로 결성됐다. 추진위에 참여한 이 지역 지도자는 이재학(나주투자개발단장) 김동준(시의회의장) 구귀인(시의원) 이광남(시의원) 김명국(전남도교육위원) 이옥만(시교육행정자문위원) 양해섭(시교육행정자문위원) 박기동(시교육행정자문위원) 박준영(시문화원장) 박천도(시불교신도회장) 이영범(前다시면장) 등 11명.

또 추진위의 이면에는 최인기 농림수산장관과 국회의원 김장권, 나인수 나주시장, 도의원 김평기, 박경중 백남식, 윤승혁, 신정훈씨와 최정기 나주시교육위원장 등은 명예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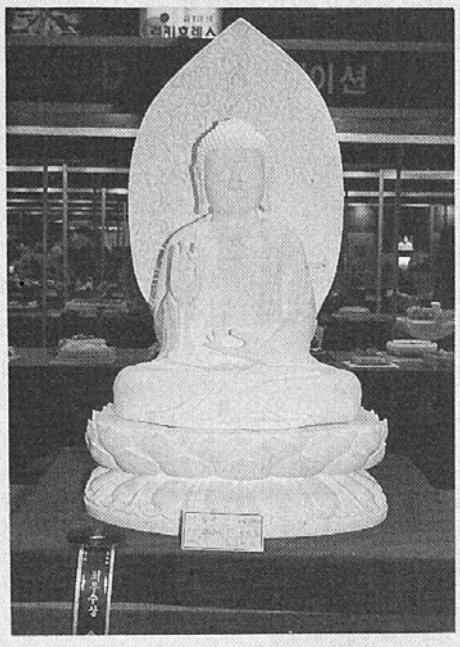
지역 각 단체장들이 불교문화발전에 발벗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만하불교박물관의 설립은 지역 불심을 한데 모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참여 인사들의 소신이다. 추진위는 박물관을 나주군 다시면의 폐교인 신광국민학교(2천평규모)나 97년 폐교예정인 다시남국민학교(1만평규모)로 점찍고 있다. 전시실과 수장고를 겸한 신축 건물을 지어 박정자씨의 작품 5백여점을 전시하며 불교미술품을 확보해 상설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장소가 결정되는대로 늦어도 97년 가을에 개관하게 될 만하불교박물관은 전시기능 외에도 지역민들에 대한 불화와 동양화교육의 장으로도 개방된다. 추진위는 개관즉시 불화·동양화 무료강좌를 열고 불교도서관도 갖춘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또 매년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수련회를 갖고 불화그리기 대회를 개최 우수 작품들을 상설전시한다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박물관에 금니가사탱화(84년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불설대부모은중경(85년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등 작품을 내놓게 될 박정자씨는 내년 가을 연세대 박물관에서 대형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회 이후 나주지역으로 이사를 해 박물관 사업에 몰두할 계획인 박씨는 "지역 인사들이 불교문화 발전에 앞장 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박물관을 통해 불교포교와 재능있는 인재 배양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80여일간의 작업끝에 완성된 지불부조탱은 질감과 조형미가 우수해 새로운 불교미술의 영역으로 평가된다.



달콤한 부처님 대한제과협회가 지난 10월30일부터 2일까지 삼성동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한 제4회 국제 빵·과자전에서 대한불과회 정판수회장의 설탕으로 만든 부처님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진철문씨 종이조각전 '가고싶다 그곳'

8일부터 조형갤러리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독특한 조형언어로 불교조각의 영역을 넓혀 온 진철문씨가 8일부터 12일까지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다섯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가고싶다 그곳'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지나 폐품등을 활용해 만든 수행상등 각종 조형물이 선보인다. 깨달음을 향한 우리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통해 진씨는 고정화의 틀을 깬 자신의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폐지를 활용해 만든 수행자들의 군상(20점)이 주는 인상은 '황량함'과 '의연한 기운'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를두고 미술평론가 옥영식씨는 "역설의 아름다움"이라고 평했다.

오늘의 비극적인 불교현실이 하나의 단면으로 치부되지만 작가에게는 또다른 가능성의 현재적 고찰로 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 황청원씨는 전시될 작품들을 통털어 "가벼움의 실체라고 할 종이를 통해 진한 존재의 무거움을 보여주고있다"고 해석했다.

이석조씨 '소리' 전

10일 대구동원화랑

만다라 화가 이석조씨의 '소리'전이 오는 10일~23일 대구 봉산동 동원화랑에서 열린다.

해학과 풍자 은유 상징 우화를 포괄하는 수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소리'라는 전시의 주제 역시 시각적인 만다라의 이미지를 청각화 시킨 것으로 그의 그림세계가 갖는 해체와 비약의 풍조를 대변해 준다.

'성자의 길' 시리즈

한승구씨, 경인미술관

한승구씨의 '현실, 그 명암전'이 3일~9일까지의 일정으로 관훈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동국대를 나와 불교미술의 현대화풍을 모색해 온 작가 한씨는 이번 전시에서 '성자의 길' '얼굴'등 시리즈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장지에 수묵채색으로 주제의 선명도를 강조한 작품들이 관객의 눈길을 끌고있다.

부산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서울에서 '동작전'(90년) '불심전'(93년)등 꾸준한 개인전을 갖고 있는 한씨는 월간 〈불교세계〉의 편집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원로작가 '이경모 고희기념사진전'이 지난 3~8일 문예진흥원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씨의 1954년 10월 작품 '서울 봉은사'.

한지를 뜨기 전의 닥종이섬유를 소재로한 후불탱 부조작품이 만들어 졌다.

'지불부조탱(紙佛浮造幀)이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를 개척한 주인공은 한지의 고장 전주에서 흙조각 활동을 해온 최춘근(34세)씨. 최씨는 최근 80여일간의 작업끝에 순한지 부조 후불탱을 완성했다.

지불부조탱화는 흙으로 만든 원형에 석고 모본을 뜨고 다시 모본에 한지섬유를 부어 형태를 떠 내는 공정으로 제작된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치밀하고 세심한 손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게 최씨의 설명이다. 특히 종이가 응고되면서 발산하는 장력 때문에 완성단계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한 스님이 법당에 모실 토판(土板)후불탱을 의뢰한데서 발단이 돼 종이부조후불탱을 만들기까지 수차례의 실험을 거친 최씨는 질감이 따뜻하고 조형미가 돋보이는 지불부조탱의 완성을 계기로 새로운 작품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순수 한지를 사용해 만든 만큼 질감과 조형성이 우수하며 한국인의 정서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첫 시도에 불과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지에 물을 들이는 것이다. 자신이 개발한 향토분채(8~9백도에 구은 흙을 갈아 입자를 한지 섬유에 먹인 것)로 만든 한지로 부조 작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종이의 질에 대한 연구와 부조물의 채색여부, 도상의 정통성 획득등 최씨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종이로 뜬 부조탱이 법당에 모셔질 날은 멀지 않는 듯하다.

부조 모본만 있으면 대량생산도 가능하지만 최씨는 "질료의 독특성을 추구한 것은 사찰과 시대적 특성을 최대한 갖는 예술품의 창작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대량생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주=임연태 기자〉

◇최춘근씨

닥종이로 만든 부조탱

최춘근씨 80일 작업 완성

따뜻한 질감·균형미 강조

새 찬불가 100곡창작 불사 마무리

BBS 5개년 사업 최종 20곡 완료

내년초 국립극장서 발표회

불교방송이 91년부터 추진해 온 찬불가 정비작업의 일환인 신작찬불가 1백곡 창작사업이 완료됐다.

불교방송은 최근 마지막 해 당년도인 금년도 신작찬불가 20곡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금년에 창작된 신작찬불가들도 예년과 같이 귀의·찬탄등 10여 분야로 나눠져 완성됐다. 불교방송의 관계자는 또 이번이 1백곡 목표를 달성한 마지막 공연인만큼 보다 큰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작 찬불가를 발표할 불교방송 어머니합창단을 이달 중순부터 연습에 들어간다.

불교방송은 개국 다음해인 지난 91년 찬불가의 정비와 모든 불자가 함께 부르는 통일된 불교노래의 보급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해부터 매년 20곡씩의 신작찬불가를 '음악공양의 밤'을 통해 발표해 왔다. 이들 신작찬불가는 귀의·예배·찬탄·발원·청법·공양·회향·참회·절기·행사 등의 분야로 고르게 나눠져 권위있는 작사·작곡가에게 의뢰해 창작돼 왔다. 김동환, 김희조, 정부기, 장일남, 김희경, 이상규씨 등 작곡가들이 매년 참여했으며 정운스님, 성우스님, 지성스님, 정완영, 황청원, 문정희씨 등도 필력을 보태 가사를 내놓았다.

그러나 불교방송은 내년부터 그간 창작해 온 1백곡의 찬불가들을 불자들이 보다 쉽게 배워 법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관련 방송국은 신작찬불가집을 발간 배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신작곡들을 소개하는 일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환경생태보존 예술인연합회 발족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촌을 보호하겠다는 불자미술인의 '민족환경생태보존예술인총연합회(환예총·대표 강행원)'가 지난 10월28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발족됐다.

한국불교재가회의 문화예술 분과를 모체로 하는 환예총은 강행원 이덕환 서영석(한국화) 박찬갑 이미숙(조각) 김영만 황남채(판화) 정경연 홍기자 두시영(서양화) 김상섭(한국화) 등 총 11명에 의해 발기됐다.

환예총은 환경보호는 물론 민족문화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인간성 회복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창립 취지에 걸맞는 예술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순수미술운동의 특수성에 입각한 창작방법론의 강구와 연구에도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96년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창립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환예총은 불교교리를 통한 창작영역개척은 물론 환경 이벤트와 설치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시회 기간에는 작가와의 대담시간도 갖는다는 복안이다.

東大국악과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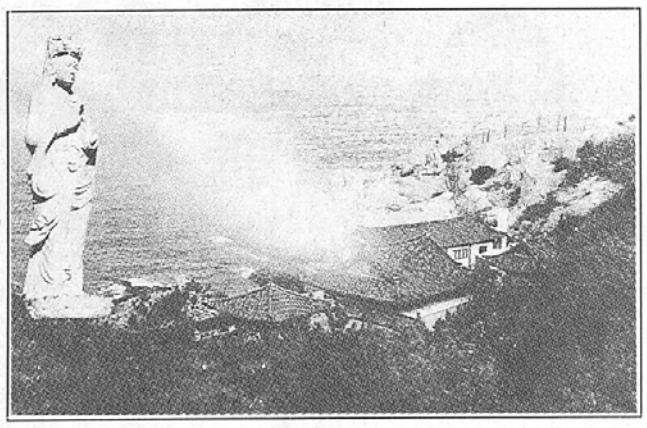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국악과 학생들의 첫 정기연주회가 8일 오후7시 대구 대백프라자 예술회관과 9일 오후7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잇따라 열린다.

영산회상곡 중 염불도드리와 판소리 바라춤 등의 악·가·무 순서와 국악찬불가 관현악과 민요·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등 관현악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불교음악의 미래를 담보한 학생들의 첫 무대란 점에서 매우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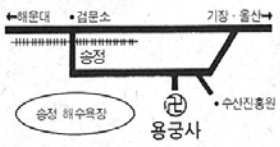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 722-7755

중국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 과정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 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등의 침구치료, 비만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침구·기공)
인 원	15명 이내
출발일	1995년 11월 27일(월요일)
남경중의약 대학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자매대학-삼화불교대학

TEL : (02) 511-2026, 2027, 2028, 1080
FAX : 511-1080

불교 정보 95년도 신판 발간

(불기 2539년-1995년-가을호)

불교계의 자료집으로 제작·보급되는 불교정보는 불교계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알차게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
1) 불교 종단의 임원 및 주소, 전화번호, 역사 등
2) 사찰의 건립 및 중창 역사, 주소, 전화번호, 현존 문화재, 소속종단, 조실 및 현 주지 등
3) 전통사찰에 전해 오는 설화와 사찰 기록
4) 사찰과 포교당의 법회, 위치 및 교통편 안내
5) 불교계 언론 및 잡지사, 출판사, 불교용품 전문점 등
6) 불교계 각종 학교, 신도회 및 일반 신행회 안내
7) 사찰과 신행회는 각 시도별로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개정판에 기재하겠습니다.
※ 불교정보 1권당 1만원입니다.
※ 책 대금을 다음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접수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053-12-023151 서울신탁은행 15501-2537606
외환은행 150-13-11760-5 체신부(우체국) 011965-0066025
국민은행 832-24-0006-924 조흥은행 390-04-164932

예금주 : 이성호

도서출판 다모다
☎ 02-921-6669, 6670